

우리 이번에는 7장 들어갈 차례고요.

이번 시간에는 형태소 그리고 단어의 형성법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풀어볼 텐데 형태소에 대한 질문은

사실 단어 형성법에 대한 질문 이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보통 1학년, 2학년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쪽 보시면 알겠지만 가령 3번 문제 같은 경우.

2016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 던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간과했다가

이런 문제를 실수하거나 아니면 몰랐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태소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좀 쉬운 문제부터 가보자고요.

지금 문장,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보면 이미 이 문장에서 단어 단위로 끊어버렸죠.

그래서 일단 쪼갠더니 나 쪼개지고, 대명사가 되겠죠?

조사 쪼개지고요.

그다음에 풋사과, 명사 쪼개지고

목적격 조사 를 쪼개지고 그리고 먹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형태소였습니다.

형태소를 조금 더 찢어낼 수 있었던 구성을 제시해줬던 건데

그랬더니 여기가 더 쪼개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풋+사과로.

그다음 여기도 쪼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먹 더하기 과거 선어말 어미 었 더하기

종결어미인 다로 끊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고 문제가 풀립니다.

먼저 1번에 는하고 를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이 문제의 의도가 뭐예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립성 유무.

이때의 자립성 유무를 따지는 건 바로 띄어쓰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띄어 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의존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보게 되면

일단 조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조사 띄어 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을, 를. 이런 거 다 붙여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접두사, 접미사.

우리 접두사나 접미사, 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심축이 있다면

거기 앞이나 또는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생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접두사나 접미사도 어근 없으면 혼자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덧붙여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용언의 어간 먹,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 었, 어말어미 다.

전부 다 혼자 쓸 수는 없어요.

어간은 어미에 의존해야 되고 또 어미는 어간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형태소로 따져보는 건 이런 놈들.

이거 아닌 나머지 형태소들 전부 다 자립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존을 표시를 한번 해보자.

뭐가 의존입니까?

는, 조사니까 의존이 되겠죠?

뜻사과를 구성하는데 이 뜻이 바로 사과라는 어근에 붙어서

앞쪽에 붙는 접두사가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말이 너무 빨라요.

느리게 들으세요.

그다음에 조사 뭐예요? 를.

이것도 의존 형태소죠.

그다음에 이게 용언의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전부 다 무슨 형태소? 의존형태소.

그러면 나머지 나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자립성을 지니고 있는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 뭐 있습니까?

실질 그리고 형식 형태소,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실질 형태소, 라는 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어근.

단어의 중심이 돼주는 어근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존 형태소가

이렇게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단 뭐가 빠지죠?

용언의 어간 부분 속에 있는 어근은 빠져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형식 형태소를 표시해보도록 할 텐데

형식 형태소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어근이 아닌 형식 형태소이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역시나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 전부 다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역시 조사, 형식 형태소.

다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야.

문제는 애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분명 우리가 이 먹었다, 라고 하는 단어에도 어딘가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는 어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이나 어미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조합이 되면서 활용이 되고 단어들이 조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단어 안에도 어쨌든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놈이 바로 이렇게 어간 부분 중에 어근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것이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 의존하고 실질형식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용언의 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형식이다.

이렇게 봐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었을 때 2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있는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것이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인 건 맞는데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랑 결합되어있는 건 아니죠.

자립할 수 있다는 건 자립형태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먹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존이기 때문에

애는 자립 요소와 붙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좀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예 형태소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립하고 의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존을 찾으면 나머지는 자립이잖아요.

뭐가 의존이에요?

이 의존이죠, 그다음에 높 의존이죠, 용언의 어간이니까.

고도 의존이죠, 푸르 형용사의 어간 부분.

다, 라고 하는 어말어미에 서로 의존해야 되겠고

다도 역시 어간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형식 따져봅시다.

의존형태소는 일단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데 뭐를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높이나 푸르와 같이

용언의 어간 부분에 실질적인 뜻 부분은 형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바로 뭐에 해당하겠어요?

애는 의존이 아닌 자립, 자립.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면 실질이 되는 거죠.

이놈은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자립형태소가 모두 4개라고 해놨는데

두 개밖에 없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다음은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놈이에요.

여러분,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세 예문이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바다 푸르다의 은는.

여기에 은하고는 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듣지, 들어라.

그다음 세 번째는 잡았지만 놓아주었다였습니다.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답지를 보면서 일단은 애네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형태소의 개념 유형.

형태소 단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어쨌든 애네들이 어떤 형태소인가.

공통점을 골라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1번이나 2번 답지 같은 경우에

단어의 자격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질문 단어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우리가 단어, 라고 하는 건 품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9개의 품사 안에 조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이나 는은 조사이기 때문에 애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듣, 들, 앓, 었.

단어야, 아니야?

하나의 단어가 형성되는 건 동사나 형용사.

그런데 앓이나 었 또는 들이나 들이 개 자체가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간은 어미, 어미는 어간 합쳐져야 동사, 형용사라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애네들은 일단 단어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을 지금 보면,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야 쓰인다.

이건 무슨 이야기야? 의존형태소, 라는 이야기죠.

3번 답지 맞습니까?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된다, 의존 형태소.

가만히 보니까 애네들 전부 다 의존 형태소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다음 설명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봅시다.

은이나 는.

우리 뒤에 문제에 나오죠?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서로 간의 앓이나 었, 서로 무슨 관계?

이형태라고 합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이형태가 뭐예요?

음운 환경에 따라.

사실 기능은 똑같지만,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해요.

받침이 있고 없고의 차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의 차이에 따라 애네들이 결정되는 거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놈도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애네들은 사실 이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가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원래 기본형은 듣다에서의 듣이었지만

이렇게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 ㄷ이 뭐로 바뀌는?

르로 변하게 되는 불규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나 이놈이 사실 같은 놈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

애랑 애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애는 둘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한 단어.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이 모음이

자음으로 시작했느냐,

모음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

4번 가봅시다.

음운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이건 맞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갖는다.

뭐가 문제가 되죠?

문법적 기능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형식 형태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는 형식이다, 애는 형식이다.

문제는 애가 그렇죠.

애네는 뭐다? 실질이기 때문에 4번이 안 되는 이유.

그다음 애네는 형식 맞습니다.

4번은 듣다, 들어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5번 답지.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요.

역시 뭐의 문제?

애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 지워내고 3번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그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부터 ㉣을 분석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봤으니깐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선생님, 이 문제 틀렸어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봤을 때 실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의 문제죠?

우리 지난번에 용언의 어간, 어미 하면서 겹과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부분도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 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은 미래형을 나타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추측의 의미만 갖기도 하죠.

지금 3번, ㄷ과 관련된 문장을 보면

보기에 지금은 그 행사가 이미 끝났겠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챙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끝났겠군, 이라는 이야기는 끝났을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측형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겹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실질 형식만 구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놓치는 게 선어말 어미의 기능과 의미.

이런 걸 놓칠 때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제 그다음 가봅시다.

5번, 보기에 ㉠부터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문제 되게 간단하죠?

3개의 단어.



줄이다, 힘들다, 오가다.

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보기를 봐야 되면 하수야.

위에 나와 있는 숫자, 치숫자, 셈숫자를 보면 하수.

그냥 딱 보자마자 어근만 찾으려면 돼.

이러면 얼마나 고마운 문제예요.

먼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표시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간하고 어미는 어디부터 출발하는 게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부터 출발하는 게 어미라고 했습니다.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뭐가 있다? 시제와 높임이 있다고 했어요.

시제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없죠?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간, 어미가 나누어진다는 게 분명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기본적인 종결 어말, 어미만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어근의 개념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야.

이 중에서 어근.

어근이 어미 쪽에 있을 리가 전혀 없죠.

당연히 어간 영역에 어근이 포함되어있을 텐데

이 중에 어근은 바로 뭐다?

줄이 어근이죠.

힘 어근, 들 어근, 오 어근, 가 어근.

정리되죠?

형태소는 일단 다 쪼개지는 건 맞아.

형태소는 나뉘는 게 맞죠.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줄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줄다에 줄이다 하면 사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미사.

어근 뒤에 붙어서 단어를 더 만들어내는 접미사.

힘들다의 경우에는 합성어가 되겠죠.

힘이 들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사 어근과 동사 어근이 결합된 거죠?

다음 오가다는 역시나 동사 어근, 동사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근만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잡아주면 되겠어요.

6번에서 7번은 세트 구성으로 지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거 언제 지문 열심히 보고 있나.

예를 들면 6번 한번 보세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윗글을 안 봤다 치자.

5번 답지 보세요.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는 모두 자립적 성격을 지닌다.

아니라는 거 알겠죠.

다시, 실질적인 뜻을 가진 형태소는 모두 자립이다?

실질이면서 자립이 아니었던 게 뭐였어?

용언의 어간에 있는 어근.

그래서 5번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문장 또 쪼개봐야겠죠.

그가 풀밭을 맨발로 뚫다.

여기서 형태소 구분합니다.

형태소를 구분하는데 그/가/풀/밭/을/맨/발/로.

그다음 뚫다 부분인데 이 뚫다를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 뚫다의 뚫+ㄴ다로 쪼개요.

그런데 평가원 기준.

우리는 학교 문법이니까 평가원 기준으로

여기서 ㄴ을 쪼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뚫로 보냐면, 뚫었다.

그러면 엮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

그런데 뭘다 그러면 현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ㄴ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ㄴ하고 다로 쪼개주세요.

먹는다, 이러면 먹하고 는하고 다를 쪼개주세요.

이렇게 해서 형태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놓고 또 한 번 자립과 의존 한번 따져볼게요.

자립만 골라보죠.

그가 자립이죠?

풀 자립이네.

발 자립이네.

명사, 명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맨 자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맨발이라는 단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맨과 발인데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맞아요.

그런데 맨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쓰일 수 없는,

항상 어근이 있어야지 앞에 붙여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것만의 뜻을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손, 맨발, 맨몸과 같아요.

따라서 이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두사라고 부르는 놈이죠.

자립이 아니죠.

그러면 항상 의존해야 되는 놈이에요.

발은 자립입니다.

다음에 이때의 뛰, 라고 하는 거 자립? 아니라고.

전부 다 어간, 어미.

서로 간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때 자립은 4개가 걸리게 되죠.

이번에는 또 실질과 형식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자립 형태소는 다 실질이야.

당연히 자립은 다 실질이야.

여기에 추가적인 실질을 찾아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이놈 뭐가 나와야죠.

용언의 어간 부분에도 역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가 실질.

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고 형식이고, 이렇게 걸려들어 갑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 풀밭은 풀 대신에 꽃을 넣거나 밭 대신에 빛을 넣게 되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우리가 형태소, 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음운이랑 헷갈려하면 안 돼요.

음운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형태소는 실질적인 단어의 형태를 보고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풀하고 밭 부분에서

앞에 걸 바꾸거나 뒤에 걸 바꿨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설명 맞고.

다음 2번에 맨밭의 맨은 밭과 결합하여 뜻을 더하는 기능이다.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다.

형태소는 맞아요.

그러나 애는 접두사.

그래서 의존적이어야 되고 또 형식적인 그런 형태소입니다.

3번, 똥다에서의 ㄴ 대신에.

2, 3번은 설명에서 나왔죠?

ㄴ 대신에 었을 넣으면 동작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니까  
이 ㄴ을 형태소로 보겠다는 거죠.  
다음 4번에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뭐 이야기해?  
자립 이야기하는 거지.  
몇 개? 4개 나왔어요.  
다음 실질적 뜻 없고 문법적 기능하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5개다.  
그러면 문법적 기능 이야기하는 게 형식 형태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는 거잖아요.  
ㄴ하고 다를 쪼겠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밑줄 친 말이 보기의 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ㄱ이 이형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형태는 기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지금 2번에 물감으로, 크레파스로 할 때의 으리와 로는  
전부 다 도구를 나타내기 위한 부사격 조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 매개모음 으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로  
두 가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로.  
탁구나 치자.  
수영이나 하자.  
이거라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예요.  
그런데 이 보조사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나가 필요합니까?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나가 붙는 거죠.  
역시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4번에 보게 되면 받으면, 주면.

그러면 앞에 원인, 그 뒤에 결과.

인과성을 나타내기 위한 연결어미로 지금 면이 올 수 있는 건데

받침이 없을 때는 면이 오지만 앞에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매개모음 으가 필요해요.

그래서 면하고 으면이 두 개 있는 거지만

둘 다 기능은 똑같아요.

인과성을 나타내기 위한 연결어미예요.

5번에 보게 되면, 잡아라, 먹어라.

전부 다 뭘니까?

명령을 나타내기 위한 종결어미예요.

아라, 어라 왜 두 개나 필요하다고요?

앞에 용언의 어간이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이나에 따라

아라, 어라 결정되는 거죠.

이제 1번 보자고요.

1번을 봤더니 광주'에' 왔다랑, 그다음에 경주'에서' 왔다.

이게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둘 다 부사격 조사는 맞는데

기능을 따져보게 되면 광주에 왔다는 도착점이고

경주에서는 출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착점과 출발점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이형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형태는 뭐다?

기능은 같아야 돼.

그러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 이야기해.

이해되지죠?

지금 광주나 경주는 둘 다 받침이 없고 둘 다 음성 모음이에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여야 되거든.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니면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이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운환경은.

그런데 그 음운환경 어디에도 차이가 없는데 다른 걸 썼다.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9번에서 10번도 역시 세트 구성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9번부터 처리해볼까요?

여기에는 답지에 나와 있는 것만 골라봅시다.

드높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말썹꾸러기.

그런데 여러분, 형태소 구분하는 문제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단어의 형성법 문제.

합성어, 파생어,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강해지려면

접두사, 접미사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쌓는 게 좋아요.

1번부터 봅시다.

드높은의 드는 ㉠에 해당한다.

㉠ 딱 봤더니 파생 접사라고 되어있죠?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태소를 구분할 때 어근이 아니면 뭐라고요?

접사예요.

그러면 어근은 실질 형태소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접사는 두 개로 나뉘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생 접사, 라는 게 있고

다음에 굴절 접사라는 게 있어요.

이 굴절 접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조사랑 어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나 어미는 파생성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네가 어근이랑 붙었다고 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즉 예를 들면 여기에 책이라고 하는 명사.

당연히 이거 실질이죠?

거기에 조사 이 또는 를을 붙였다고 해서

책이가 단어가 되고 책음이 단어가 되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용언의 어근은 먹다에서의 먹이 어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미로 다를 만들고 고를 만들고 지를 만들었을 때

먹다, 먹고, 먹지가 다 각자, 각자가 단어가 되는 건 아니죠.

한 단어 먹다의 활용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네들이 아무리 연결된다고 해도

애네들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로 한번 써볼까? 발.

그런데 파생 접사는 좀 다른 경우죠.

우리 파생 접사는 뭐가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나 접미사는 어근에 붙으면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맨.

접두사 붙였더니 단어가 맨발 사전에 등재되는 거잖아요.

또 먹다에 처먹다, 접두사.

그러면 단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는 접미사 먹이다 해도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전에 등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어근에 붙어야지만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 접사들은 붙었을 때 단어가 생성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 지금 이 드가 파생 접사,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죠.

형태소를 나눴을 때 애는 높다, 라는 단어의 활용형이죠.

그런데 드, 라고 하면 좀 강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매우 높은의 느낌이죠.

그래서 드세다 하면 매우 세다, 이런 뜻인 것처럼

결국 애는 접두사에 해당하는 거고 파생 접사에 해당하는 거죠.

1번은 좋아요.

2번 갑니다.

말썽꾸러기에서의 꾸러기가 파생 접사라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꾸러기들.

이렇게 해서 꾸러기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명사처럼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꾸러기는 반드시 어근 뒤에 붙어써야 돼요.

그래서 말썽꾸러기, 무슨 꾸러기 해서 항상 뒤에 붙어써야 되는

접미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설명 맞고요.

그러니까 2번 이 꾸러기는 파생 접사고

그렇게 됐을 때 말썽이라는 단어와 말썽꾸러기, 라는 단어는

아예 별개의 단어가 돼 버린다.

왜?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 단어가 달라진.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별개.

3번, 되었다의 었은 뭐냐.

이거 뭐예요? 접미사 아니죠.

이건 어미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애는 굴절 접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미는 어간에 결합되어 특정한 기능만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있되 단어를 만들어내는 힘은 없는 거네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깊이에서의 이는 ㉠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이 바로 어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다시 했었죠?

이때의 깊이는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뭐로 쓰였어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부사로 쓰인 거지.

애가 지금 이렇게 꾸며줬잖아.

그러면 용언을 꾸며줄 수 있는 부사인데

이때의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부사화 접미사, 라고 불러줬죠.

접미사.

파생 접사가 되겠죠?

따라서 애가 ㉠에 해당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 5번에 흐르고에서의 고는 어미 맞죠?

흐르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

그러니까 흐르고는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어.

왜? 기본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어미의 기본형인 다를 써서

사전에 등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0번 문제 같은 거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뭐냐하면, (가)의 예, 파생 접사가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어근이 있는데 앞쪽에 접두사가 올 수도 있고

뒤에 접미사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접두사가 어근에 붙었다고 해서

이 어근이 가지고 있는 원래 품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접두사는 품사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예 없죠.

접두사는 아무리 붙여봤자 어근에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접미사는 품사 무조건 바뀐니까? 아니에요.

애는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일이 따져보셔야 돼요.

접미사가 붙어있는 경우라면

어근의 품사가 바뀌었냐 아니냐 따져보셔야 됩니다.

1번 갑니다.

행복.

품사 뭐? 명사.

그러면 행복하였다는 사전에 뭐 찾아야 돼?

하다를 찾아야 돼, 행복하다.

품사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하다가 동사 하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근에 붙어쓰는 놈을 접미사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다는 그 자체로 동사도 있지만

하다 접미사도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에 찰랑거리다.

품사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계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의성 부사, 의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형용사된 거죠.

그다음에 찰랑 뒤에 거리다 붙었어요.

역시 거리다도 접미사인데 이게 붙었으면 어떻게? 찰랑거리다.

ㄴ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애는 동사가 되죠?

3번 갑니다.

3번에 보면 좁혔다인데 기본형 어떻게 잡아야 될까.

좁+히+다.

이런 거 따질 때는 빨리빨리 적어 없애요.

물론 선생님, 이거는 왜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으려고 할 때는

보통 사전에서 접미사 정보를 찾으려면

하다 접미사나 거리다는 이 자체로 찾고요.

히 같은 경우는 히만 찾아야 정보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고민할 거 없어요.

어쨌든 좁다는 사전에 품사 찾으면 뭐 나오겠어요?

상태, 형용사.

좁히다가 되면 어떻게 돼?

ㄴ다를 붙일 수 있죠.

좁힌다. 공간을 좁힌다.

애가 동사가 된 거야.

히라고 하는 접미사를 붙여서 동사가 된 거예요.

품사 바뀌었어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높다랗다.

높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

높다랗다 품사 뭐예요? 여전히 형용사죠.

왜냐하면 높다랗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는 여전히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정답은 4번이 답이어야 되죠.

그다음 5번을 보게 되면 자랑스럽다예요.

그러면 애는 자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죠?

자랑을 했다와 같이 명사인데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스럽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낮설다, 라고 하면 뭐의 문제냐면

접두사, 접미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용언 만들어주는 접미사지, 라는 거

표를 통해 좀 익혀야 됩니다.

현대 문법 우리 강의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도 달아주고

좀 외워줬으면 싶은 것들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갈 때 자꾸 눈에 익히면 이런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단어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번 보겠습니다.

㉠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접사가 붙었다, 라는 경우가 있고

접사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안 쓰고 그냥 해야겠다, 쉬운 거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다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써야겠다.

마음이 금세 바뀌었어요.

일단 애네들은 형태소부터 쪼개는 작업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선생님, 군이 뭔데요?

군이 쓸데없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되죠.

그래서 군것질했을 때 군것도 있겠지만 군살 같은 거.

군살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 것은 의존명사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할 때의 그 것.

질문.

의존명사 것은 실질일까요, 형식 형태소일까요?

실질이죠.

의존명사도 명사인데.

의존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의

이 것은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일까요?

이러면 정말 많은 친구가 이 것을 의존명사니까 의존 형태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띄어쓰기 유무라고.

것은 띄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애는 뭐가 된다? 실질 형태소예요.

이걸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절대 자립 형태소 아니예요.

실질 형태소.

그래서 일단 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실질 형태소만 한번 동그라미로 표시해줄게.

나머지는 그림 다 접두사나 접미사 쪽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바느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합된 거죠?

바늘 더하기 질이죠.

이때의 바늘, ㄹ이 탈락한 거 빼고는 어쨌든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겹겹이 겹/겹/이가 되는 건데 한 겹 두 겹할 때의 단위 의존명사죠?

그다음에 다듬 같은 경우에는

다듬다 할 때 용언의 어간 부분인 다듬입니다.

더하기 이가 붙어있는 건데 명사화 접미사가 붙어있죠?

그다음에 헛/웃/음.

실질은 뭐가 되겠어요?

웃이 되겠죠.

웃다인데 거기에 음도 붙고 헛도 붙고 했는데

이거는 1번부터 과정을 한번 물어볼게요.

군것질은 것에 군이 먼저 붙었을까요, 질이 먼저 붙었을까요?

것질입니까, 아냐는 군것질입니까.

군것이겠죠.

그래서 군것을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질이 붙은 단계.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바느질은 고민할 거 없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겹겹이 당연히 겹이에 겹이 한 번 더 붙었다?

아니죠.

겹겹 쌓였다 거기에 이가 붙은 거로 봐야 되겠죠?

다듬이는 이거 한 번밖에 없고.

헛웃음 어때요?

헛웃다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웃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앞에 코웃음이 될 수도 있고 눈웃음이 될 수도 있고

너털웃음이 될 수도 있고 헛웃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웃음이 먼저 붙고 그다음 헛.

선생님이 비웃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다르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비웃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붙는 구조, 애는 이렇게 붙는 구조.

왜냐하면 비웃다, 라는 단어가 먼저 붙잖아.

비웃다, 라는 단어가 활용되다가 음이랑 붙었겠구나, 라는

그런 구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보게 되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다시 접사가 붙은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정답 애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사가 결합해 어근의 품사가 변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겹겹 하면 명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한 겹, 두 겹할 때 명사인데 명사가 겹겹이 쌓였다.

그러면 결국 뭐가 돼?

겹겹이 쌓이다.

꾸며주는 구성이면 부사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이는 부사화 접미사로 판단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정확하게 답입니다.

12번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1번을 답석 무는 경우가 생겨요.

선생님, 저 알아요.

여기 골 자, 뼈 골 자잖아요.

그러면 뼈골이라는 단어에 뼈, 그다음에 골.

중복이니까 정답 1번 아닙니까, 1번 왜 틀리나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보기에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설명에 보면, 희가 이미 복수라는 거야.

애는 형태소를 구분하면 이렇게 쪼개서 저라고 하는 실질 부분.

실질 형태소 뒤에 접미사로 희가 붙었어.

그러면 희가 붙으므로 뭐가 됐다? 복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저희가 하면 이미 복수야.

그런데 거기다 복수 개념의 접미사를 하나 더 붙였어.

이런 구성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뼈골은 뼈하고 골하고 둘 다 실질 형태소끼리 붙어있는 거고

의미 중복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뼈나 골이나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의미 중복만 찾는 게 아니라

그 구조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외갓집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외, 바깥의, 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가가 결국 뭐예요?

이 한자를 모르진 않겠지, 집 가 자.

거기에 뭐까지? 집 자.

그럼 사실은 외가, 이렇게 해서 단어가 형성되어도 이미 완성돼요.

그러니까 저희해도 이 복수 끝.

외가 해도 집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 복수의 의미 들,

또는 집의 의미를 한 번 더 붙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질이나 형식이나의

이런 단위를 따지게 되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실질, 형식.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형태소만 쪼개주고 복수 개념의 의미가 두 번 붙는 것처럼  
또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두 번 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애도 실질이고 애도 실질이죠.

오히려 외, 라고 하는 것이 바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문제 의도에는 가장 맞는 것이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씹씹이인데

씹씹이 이미 중복의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역시 구조가 안 맞아.

그래서 3번 지우고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아예 중복이 없다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도 한번 더해보요.

13번도 이런 구조잖아요.

똑같이 이런 구조잖아요.

자꾸 연습해야 돼.

문제는 뭐랑 유사한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뜨개질과 유사한 걸 찾아보래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된다?

뜨다.

~하는 것 개.

덧개, 날개할 때 명사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접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근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뜨다가 어근이고

나머지 개나 질은 접미사, 접미사.

그런데 단어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뜨개가 붙고 질이 붙는.

이런 구성을 똑같이 찾으려면 돼요.

그래서 1번 갑니다.

싸움꾼.

2번, 굳것질 안 해, 아까 했잖아.

3번 놀이터.

4번 병마개.

5번 미단이.

우선은 미단이 먼저 가볼게요.

미단이 구성 어떻게 되는 거야?

밀다.

선생님, ㄹ이 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문 규정할 때 볼 건데요.

단어가 결합되면서 ㄹ이 빠지는 예들이 꽤 많아요.

아까 전에 바느질도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밀다에 단다, 이렇게 더해진 거죠.

결국 밀다와 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실질이고 실질.

이러면 벌써 틀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밀고 단다, 라는 단어가 먼저 형성이 됐다가

뒤에 있는 게 붙는.

이렇게는 순서는 맞지만 어쨌든 실질, 실질이라는 점에서

실질, 형식, 형식.

접미사, 접미사 구조가 안 맞아요.

그다음, 병마개는 좀 지금 여러분이 알기가 힘들어요.

이걸 만약에 병+막+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어문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런 단어의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대로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접미사로.

명사화 접미사로 쓰고 있는 게 이나 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나 음 이외의 과거에 있었던

명사 만들어주는 접미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랑 붙은 단어는

지금 그런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는한 소리 나는 대로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적 과정이 적용이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거예요.

막+애? 막개?

ㄱ이 왜 빠지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막+애예요. 이런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애라고 하는 명사화 접미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구성이라면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하는 어문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형성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 보는 거잖아.

역사적 과정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쪼개는 거야.

한 단어가 돼 버리는 거야, 이걸.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 뜨개할 때의 개랑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는 그냥 한 번 구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 쓰려고 했어.

1번하고 3번만 이야기해볼게요.

1번하고 3번이 사실 후보가 될 겁니다.

한번 나눠보시면 애 어떻게 돼요?

잘 쪼개야 돼.

원형 싸우다지.

더하기 명사 만들어주는 ㅁ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거 틀릴 거야.

놀이터는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놀이터 좋아.

이 놀이가 먼저 붙고 터가 나중에 붙지?

정답 3번,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서 생긴 일이야.

애도 어떻게 됩니까?

싸움 먼저 만들어지고 끈이 나중에 붙어요.

이제 뭐로 조직해야 돼?

어근이나 접두사, 접미사냐 이걸 찾아야 돼.

싸우다, 어근이죠?

ㅁ은 명사 만들어주는 접미사.

끈은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정답 1번이야.

그런데 왜 3번을 썼겠어요?

놀, 실질이죠?

이,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여기까지 좋아요.

문제는 이거를 놓쳐서 그래.

여러분, 터가 접미사야?

터가 좋구나.

접미사예요?

애는 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고

홀로 쓸 수 있는 자립이자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해서 ㅁ을 잘라낼 수 있느냐의 능력,

그다음에 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냐.

이게 필요했습니다.

다음, 14번 가봐요.

14번도 쪽 보다 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까지 풀었던 지식이라면 풀 수 있어.

단 실수가 생겨.

어디에? 5번에.

회덮밥은 나오는데 덮밥에 회가 더해진 거.

그렇죠.

회덮에 밥이 붙은 게 아니라 덮밥 붙고 그다음에 회가 붙은 구조군.

좋아.

뭐가 틀렸죠?

보통 우리 이렇게 나오면 뒤쪽에 합성어다 파생어다 단일어다.

이게 잘못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앞쪽에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파생어예요.

이거 파생어예요, 아니예요? 아니죠.

왜? 이거는 구성 어떻게 되는 거야?

덮다 할 때의 덮에다 명사 밥.

그러면 어근+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죠.

그래서 이런 거 앞쪽에 있으니까 놓치고 뒤쪽 보다가 실수를 많이 했다.

답 잘못 찾았다.

이런 문제 중의 하나예요.

그다음 15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난 이거 감자 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부르나?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싹 싹 줄어내는 거.

여러분, 감자 칼이라고 안 부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새롭게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튜브가 있으면 튜브에 이렇게 바람 부는 데 있잖아요.

이거 이름 뭐지 아세요?

이런 것도 이름이 다 있어요.

바람꼭지.

이거 다 이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이름 모르니까 야, 거기 바람 부는 데 공기 좀 넣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 이런 이름이 있을 텐데 모르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보니까 방식이 ㉠은 오이칼.

그러면 명사, 명사 더해진 거죠.

통사적 합성어.

드디어 나왔어.

뭐 나왔어요?

통사적 합성어.

그러면 이제 정돈이 돼야 되죠?

우리가 단어의 형성법을 본격적으로 언급할 때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죠.

단일어는 어근을 1개만 이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단일어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이 꽃이나 매우 같은 경우는 형태소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높다의 경우에는 형태소는 높하고 다로 쪼개지지만

이런 다는 굴절 접사.

즉 의미 없는 어미에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어차피 어근은 1개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일어라고 부르게 되죠.

복합어를 정리하면 뭐랑 뭐로 나누어진다?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었죠.

선생님, 이렇게 조합된 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최종 구성 요소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이터의 경우에는

애가 먼저 붙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애랑 붙었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거, 이거 주의하세요.

합성돼서 만들어졌든 파생돼서 만들어졌든

이미 만들어진 단어는 어근이 돼요.

이미 만들어졌으면 어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놀이하는 파생어지만 이제 어근인 거예요,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 애는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애는 만들어진 이 싸움 어근에 접미사가 붙었으니까

결국 애는 파생어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냐 없냐.

이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에 뭔가 두 재료 중에 접두사, 접미사가 있으면 파생어.

두 재료가 전부 다 어근으로 처리되면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파생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접두사가 붙는 접두 파생어가 있고

접미사가 붙는 접미파생어가 있겠네요.

그런데 합성어인데 합성어를 나눠주는 기준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죠?

이거 말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합성어 구분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합성어가 A와 B의 어근 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 A하고 B가 그냥 그대로 뜻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A가 B를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A하고 B의 조합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의미에 따라 나눠주는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체계화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구조적인 측면일 텐데

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뭘 기억하자?

비통사적 합성어를 꼭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언의 어간에 체언을 곧바로 결합하는 경우.

용언의 어간에 다른 재료가 더 있으면 안 돼요.

용언의 어간에 곧바로 용언을 더하는 경우.

그다음에 부사 어근에 체언을 더하는 경우.

사실은 이거 부사 어근 말고 용언의 불규칙적 어근 뒤에 체언.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사실 구분을 잘 안 할 겁니다.

문제도 잘 안 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재료가 없기 때문에 통사적이지 않다.

즉 우리 국어의 문법 구조랑 좀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겁니까?

용언의 어간에 체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해?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나 는이나 을이라 던, 이런 게 필요했었죠.

이게 안 보인다는 점에서 통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언의 어간에 곧바로 용언을 붙인다는 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연결어미가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사적이지 않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사에 체언 붙이는 구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체언을 수식하는 건 관형사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관형사 대신에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는

좀 일반적 구조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면 덮밥, 아까 써놓은 거.

그러면 덮은 밥, 이랬어야 되는데 왜 덮밥이냐.

그다음 이거 같은 거 오가다.

연결어미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오고 가다, 이런 식으로 고 같은 연결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애는 부슬비.

부슬은 부슬부슬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전부 다 부사라고 했습니다.

부사 어근에 체언을 곧바로 더하는 경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사니 비통사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 명사 어근과 명사 어근이 더해지는 합성어는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다음 2번에 보게 되면 깜작깜작(각작각작)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사각사각 전부 다 부사들이 되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

부사 어근에 명사 어근을 결합했는데

이거는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통사 구조 맞죠.

다음 3번에 ㉡은 짜게나 깎게 했을 때 게라고 하는 접미사 붙였죠? 파생어.

다음 4번, 명사 어근에 접사를 붙였느냐.

지금 굶다, 밀다 전부 다 뭐에 해당하죠?

동사에 해당해.

도구는 명사고요.

그러면 애는 동사 어근에 곧바로, 뭐 없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없이 명사 어근을 붙였으니까 합성어이고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이야기해줘야죠.

접사도 없어요.

5번에 부사 어근 박박 또는 쓱쓱에 접사인 이를 붙여서

만들어진 파생어 확인이 됩니다.

가보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면 보기에 밑줄 친 낱말들의 합성 과정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16번이나 17번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해요.

논밭.

단어 형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재료가 논밭인데 합성된 단어도 논밭, 안 바뀌었죠?

그러면 1번 벌써 틀렸어요.

의미는 어때요?

논하고 밭을 이야기하는 건 맞죠.

그러면 의미도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다 바뀌지 않았다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 가볼까요?

오빠와 누이 결합했을 때 오누이가 됐다, 라고 하면 빠는 어디 갔어?

없잖아요.

그러면 형태는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틀려요.

그다음,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오빠 누이. 오누이 관계 맞죠?

이건 바뀌지 않은 게 맞습니다.

즉 2번 ㉠의 경우에는 형태는 바뀌었고 의미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3번 ㉡ 가보죠.

교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깨끗이 청소했다.

16번, 17번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교실 안팎을 했을 때 애는 형태가 안+밖인데 왜 꺾이 됐느냐,

이 이유는 우리가 중세국어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결국 이 단어의 형태는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의미는 어때요?

교실 안팎을 했을 때 안팎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죠.

정말 안과 밖을 청소한 거니까.

그런데 그냥 곧바로 17번 가볼래요?

17번 2번에 보면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라고 할 때의 안팎은 의미가 사람의 안과 밖을 속속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면 애는 의미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16번에 있는 3번의 안팎은

진짜 교실의 안팎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지만

17번에 2번 답지에 나와 있는 사람의 안팎.

이럴 때는 의미 변화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 쓰인 맥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을 보게 되면 밤낮, 형태 안 바뀌었죠?

그런데 뜻은 너 밤낮 놀기만 해.

그러면 24시간 밤하고 낮,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의 의미로 달라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

5번의 경우는 반질고리 형태는 바뀌었는데 의미는 바뀐 거 없어요.

고리가 뭐예요?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고리가 이렇게 둥그런 고리도 있지만

그것과 동음이의어 이것도 고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느질고리라고 했을 때 상자 같은 거.

이런 걸 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단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5번에 대해서 헛갈려 하는 거죠.

17번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 마소를 보게 보면 말하고 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의미 변화의 경우에는

그냥 말하고 소를 뜻하는 거니까 의미 변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

18번 가보도록 하죠.

18번은 이런 문제는 좀 수월하니까.

18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사고방식

4개를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것들

A, B, C, D 어디에 해당하는 예인지를

잠깐 멈춰놓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1번부터 가요.

1번, 여기저기는 뭐에 해당해?

B죠.

가까운 거리를 먼 거리보다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2번이 없죠, 정답.

그다음 3번, 어제오늘은 D에 해당하죠.

앞선 시간 먼저.

그다음에 4번, 잘잘못.

잘하다, 잘못하다 할 때 잘.

이게 긍정의 요소가 먼저 있다는 거죠.

그게 C.

다음에 5번, 예닐곱은 뭐의 결합형?

여섯과 일곱의 결합형이죠.

그래서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가는 거죠.

A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19번.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지금 보기 내용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

무슨 합성어? 융합 합성어, 라고 합니다.

그게 아닌 걸 골라보자.

1번,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말 이때는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손과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러면 애는 그냥 대등 합성어, 라고 해줘야 돼.

2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융합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정말 불났습니까?

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험.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3번에 쑥밭.

쑥밭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쑥이 자라는 밭입니까?

그거 아니죠.

난장판, 아수라장.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4번에 보게 되면 피땀을 흘려.

꼭 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노력의 의미로 쓰인 거죠.

다음 5번을 보면 바늘방석.

바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방석 위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불편한 자리의 의미로 쓰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20번은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는 답지 1번이 답이죠?

유일하게 사생이라는 단어만 뒤집어서

생사를 알 수 없었다와 같이 쓸 수 있었죠.

2번 빈부, 3번 화복, 4번에 곡직, 5번에 손익.

뒤집어쓸 수 있다? 없죠.

복화 안 되고 부빈, 직곡, 익손.

어색하죠.

이런 지식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21번인데요.

21번 문제는 좀 주목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1학년 문제로 그냥 단순 구조로 살짝 나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는 일일이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합성어인 걸 확인하고 그 합성어 중에서

아까 열거했던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은 건

다 통사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런데 통사적 합성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요.

체언 어근, 명사 어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체언에 그 어근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언에 어근이 붙어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이나.

생략되어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그런데 선생님, 조사가 생략됐는데 왜 통사인가요?

조사가 생략되는 건 문장 구조를 흔들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너 밥 먹었니와 같이

목적격 조사 을, 는, 너는 할 때의 는.

이런 거 빼버리지 않습니까?

너 밥 먹었니?

그래서 조사가 빠지는 것은

통사적 구조를 흔들지는 못한다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뭐가 빠졌냐.

이겁니다.

보기에 지금 본받다는 단어 한 단어인데

결국 애는 원래는 본을 받다, 이렇게 됐겠죠.

이러다가 본받다 만들어진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사 어근, 그다음에 용언의 동사 어근.

이런 식인데 결국 이거 찾는 거죠.

목적격 조사.

1번부터 갑니다.

혼나다.

혼이 나다.

주격 조사 지금 빠져있는 거죠?

다음 2번, 빛나다.

빛이 나다, 주격 조사 빠져있는 구조.

힘들다, 힘이 나다.

다 주격 조사네요.

4번 갑니다.

앞서다. 앞서다 어떻게 돼요?

에 그러면 부사격 조사.

질문, 남다르다.

남과 다르다 역시 부사격 조사.

그다음에 5번이 답이겠죠? 겁먹다.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목적격 조사 찾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통사, 비통사 예들 쪽 잡아줬고 정리 잘해봤어요.

여기에 따른 예를 하나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5번은 지금 앞서다, 바로 했어요.

바로 뒤였습니까?

체언 어근에 용언의 어근이 결합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는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애는 통사적 구조,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3번의 경우에는 뜯소문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다의 어근인 뜯.

용언의 어근 부분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취해진 상태라면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체언을 꾸미는 구조가 적합하죠.

그래서 이게 통사적 구조의 합성어라고 보는 거죠.

다음 문제 갑니다.

23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나 이거는 의미 구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각각의 어근이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가 밑줄 쳐져 있고

그게 아닌 걸 찾아보자는 거였는데 정답 쉽네요.

5번, 구멍가게.

여러분, 그 가게가 구멍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구멍의 의미는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유형을 몇 개 풀어보라고 드린 거예요.

24번 같은 경우 볼게요.

㉠에 해당하는 거 단순결합.

칼집은 어때요?

이거 여러분, 단어 두 개인 거 아시죠?

동음이의어.

이해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동음이의어인데 애가 두 가지로 갈 거예요.

합성어랑 파생어가 둘 다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만약에 애가 합성어다, 라고 한다면

하우스.

그런데 이게 의미는 좀 달라졌죠.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칼을 칼집에 넣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칼의 집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칼의 진짜 집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칼을 보관할 수 있는 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애는 집이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애는 칼에는 의미가 남아있지만, 집에는 의미가 바뀐 거여서

단순 의미의 결합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거 지금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기가 잘 익도록 고기에 이렇게 착착 칼집을 넣었다.

칼에 집을 넣었습니까? 아니예요.

이거는 흔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집은 접미사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 칼집은 파생어예요.

칼이라고 하는 어근에 집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

그런데 칼집어 넣었다, 그건 합성어.

이렇게 또 뜻이 달라.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거죠.

합성어, 파생어.

이제 다시 돌아와서.

2번에 쥐며느리는 완벽하게 ㄷ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벌레류 중에 쥐며느리라고 있는데

쥐랑 관계 전혀 없고요.

며느리 결혼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애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보셔야 돼요.

벼락부자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의미가 남아 있죠.

부자는 맞는데 벼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갑작스레 의미를 이 벼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부자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애가 ㄴ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따라서 ㉠에 적용될 수 있는 거.

단순 의미 결합은 비와 바람, 오빠와 누이.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에 결합될 수 있는 거.

칼집이나 벼락부자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 쪽에 의미 변화, 벼락의 의미 변화.

이렇게 나왔으니까 3, 4번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런데 ㄷ과 관련된 문제는 벼락부자는 빠져야 되니까

취미느리만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5번 이거는 정말 접두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접두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잘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파생어 찾아봐라의 문제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강마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이 강이

접두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매우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또 마른의 의미도 좀 강해요.

또 억지스러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억지스러운 같은 경우는 강울음.

아이가 강울음으로 울었다 그러면

억지스러운 울음으로 울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강기침 하면 약간 마른기침.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접두사 기능이죠?

강이라고 하는 게 강이 마르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 어휘력이 부족해서인데

선생님이 준 표를 잘 보세요.

나머지 잘 보세요.

첫, 접두사입니까? 아니지.

우리는 첫 직장할 때는 첫 띄고 직장 띄어 써.

그러면 이 첫은 뭐예요? 관형사죠.

맞잖아요.

또 새색시와 한 단어로 결합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새학교할 때 붙여 씁니까? 띄어 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관형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색시라고 하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다 합성어죠.

다음에 알보다 같은 경우는 보, 동사.

알 어디서 왔겠어요? 알이라는 접두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알다, 라고 하는 형용사죠.

형용사, 동사 어근 결합된 거죠.

합성어예요, 다.

군밤은?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군살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접두사 맞아요.

쓸데없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

그런데 이 군밤은 어디서 온 거야?

구운의 뜻이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줄여 쓴 거거든요.

따라서 애도 뭐가 된다?

굽다, 밤. 동사 어근, 명사 어근 합성어죠.

그러니까 애는 이 강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잘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오해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25번 틀렸다면 실수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6번 봅니다.

A의 사례를 추가하자, 라고 했는데

A는 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더니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골라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친 단어들을 나눠보셔야죠?

1번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느+사이에요.

이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돼? 사이에 품사는 뭐야?

명사죠.

어느 사이 했을 때 사이가 명사예요.

질문, 어느새는 지금 이 문장 내에서 뭐로 쓰였죠?

어느새 뭐가 됐다, 어느새 3학년이다.

이거 뭐야?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면 애 품사가 뭐야? 부사가 됐죠.

1번이 정답이야.

1번이 품사가 뒤품사가 뭐예요? 사이니까 명사인데

명사로 결정된 게 아니라 부사로 결정됐어요.

정답 1번.

2번 갑니다.

남달랐다, 남다르다.

다르다 품사 뭐? 형용사.

남다르다 해도 뭐? 형용사.

유지가 됩니다.

다음 늦잠.

잠 명사, 늦잠에도 명사.

다음에 4번에 낮선 했을 때 낮선 하면 낮설다죠.

낮설다인데 설다, 라고 하면 형용사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낮설다에도 역시나 형용사.

그러니까 ㄴ다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태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설다 형용사, 낮설다 역시 형용사.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하루빨리 할 때 빨리 품사 뭐? 부사죠.

하루빨리 해도 역시 부사.

왜냐하면 하루빨리 오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역시나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답은 1번 확인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트 구성으로 나와 있는 27번에서 28번 같은 경우도 지문을 언제 다 읽고 있어.

그런데 읽을 수밖에 없게 구성이 돼 있죠.

27번 같은 경우는 윗글의 설명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글 읽으라고, 이거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

가령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정답 2번이 정리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ㄱ을 먼저 가볼게요.

ㄱ에 해당하는 사례가 선생님의 세 번째 대사에 보게 되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 결합한 경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그 단어의 재료가 그대로 유지된 형태인데

그게 ㉔에 비빔과 냉면이 그대로 유지되어있는 거 골라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마지막 대사에 보면

인터넷 강의가 결합이 되었는데

그걸 한 글자씩 줄여서 인강이라고 하는

그 예와 ㉔에 사범대학의 한 글자씩 사대.

이렇게 줄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예문이 정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㉔과 ㉔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28번에 보게 되면 명사가 아닌 품사가 만들어졌는데 합성 명사.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합성어 나눠주는 기준으로

선생님이 사실 두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통사, 비통사 물어보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게 대등이야 아니면 종속이야,

꾸며주는 구성이야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졌어?

이런 거 하나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합성 결과물.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명사면 합성명사.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즉 품사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는 나오죠.

합성 명사가 있을 수 있고 합성 형용사가 있을 수 있고

합성 부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나누지 않은 건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합성 명사가 재료가 A, B가 있어요.

어근, 어근 결합됐어.

A랑 B가 전부 다 명사여야 합성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AB가 명사면 합성명사인 거지

재료는 명사가 아닐 수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새색시 같은 거 봐요.

첫사랑 같은 거 봐요.

결국 뭐예요?

애 명사예요.

합성 명사예요.

그런데 합성 명사인데 재료를 따져보면 관형사에 명사를 더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재료가 명사, 명사가 아닌데 왜 합성 명사입니까?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이 재료가 하나도 명사가 아닐 수 있다.

그게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죠.

잘못.

여러분, 잘못의 단어 품사가 뭘까요?

두 개, 애는 품사 통용 단어가 걸려요.

왜? 잘못은 명사도 존재하고 부사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품사 뭐예요?

잘못 봤네요 이러면 용언을 꾸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사가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1번 답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잘못은 나왔어요.

그러면 애는 뭐야? 조사랑 결합을 시켜줬던 거 명사로 처리해야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잘못이 명사인데 재료가 뭐야?

잘하고 못이에요.

이거 전부 다 품사 뭐예요?

잘 먹었어요, 못 만났어요 할 때의 부사죠, 재료들이.

그래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들인데 재료가 부사끼리 결합돼서

결론적으로는 명사로 쓰였으면 합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죠.

2번은 새 것.

새는 관형사, 것은 의존명사.

명사예요.

다음 3번에 요사이.

요하면 이거 지시 관형사가 되는 거죠.

요~, 이, 그, 저의 좀 작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저 지시 관형사.

요, 고, 조, 이것도 지시 관형사예요.

사는 명사죠? 하나는 명사가 걸려요.

오늘날은 명사와 명사죠.

다음 5번에 갈림길.

원래는 갈리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의 명사형에다 역시나 명사인 기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9번의 경우에는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것도 지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4번이 접두사나 접미사는 여러분 무조건 어디에 붙어야 돼?

어근에 붙어야 돼.

어근은 자립성이 있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자립성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여기에는 애가 없죠?

그런데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쉽게 웃음이다.

접미사죠?

접미사가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에 붙었습니까?

아니죠.

웃다, 라고 하는 건 동사의 어간 부분인데

애는 자립적이지 않아요.

의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에도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거나 있거나 다 상관없어.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접두사나 접미사는 자립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에 붙어있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0번 문제는 접두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헛디다를 풀어보면 잘못.

즉 잘못의 의미가 헛에 있다는 거죠.

실수의 느낌.

1번, 치뜨고.

여러분, 치뜨고가 가늘게 뜨고예요?

그러면 질문.

치숫다는 가늘게 숫다? 무슨 의미죠?

위로.

그래서 치뜨다는 눈을 이렇게 뜬 거죠.

내리뜨다, 치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는 위로 뜨다예요.

다음 2번, 덧대다.

널빤지를 덧대다.

겹쳐대다, 겹치다, 괜찮죠?

정답 2번이었고.

3번, 들끓다, 들쭈시다.

들, 접두사 어떤 느낌이죠?

마구, 강조 느낌이야.



그런데 여기서 안에서 끊어야 들끓는 게 아니라 마구의 의미.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되겠다.

붕대를 되겠다.

그러면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니까

다시의 의미를 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

친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친친의 의미에 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가 들어갔어야 돼.

휘젓다.

원형으로 저어야지만 휘젓습니까?

이렇게 저으면 휘젓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휘젓다는 역시 휘가 마구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1번 갑니다.

31번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 쪽 보면, ㉠, ㉡, ㉢, ㉣이

㉠ 파생어 만들었는데 품사 구조, 문장 구조 변화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추가적인 정보.

㉢ 제시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아까 전에 파생어가 나눌 때

이 접사, 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질 때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정적 접사, 라는 게 있고 지배적 접사, 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한정적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사를 이야기해요.

단어는 만들어내지만, 어근의 품사는 못 바꿔요.

그에 반해 지배적 접사는 뭐라고 합니까?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지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애는 단순히 그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따지나면, 문장 구조를 바꾸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통사적 접사는, 보세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는 나뉠 수밖에 없어요.

애가 한정이면.

그러니까 어떤 게 한정이다.

그러면 개는 지배는 아니예요.

어떤 접사가 지배적 접사면 애는 한정적 접사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통사적 접사는 이러면서도 통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는 그냥 추가 정보인데

예를 들어 이건 사동, 피동 접미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예를 들면 동생이 책을 읽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읽히다가 되면, 우리 알잖아요.

읽히다, 라고 하면 사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생이로 남을 수 없죠, 동생에게로 가요.

그러면 문장 구조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동주가 새로 생기겠죠.

형이, 하고 사동주가 새로 생기고 이걸 그대로 가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부분들.

주어였던 놈이 애가 부사어로 바뀌어야죠.

형이 동생에게 책을 읽히다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희가 붙게 되면 이 접미사가 통사적 접사라고 하는 거야.

문장 구조를 바꿨으니까.

원래 있던 문장의 뜻은 유지가 되면서 문장 구조를 바꿔주는.

그런데 이때의 희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나 지배냐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한정이라고 봐야죠.

왜? 읽다는 동사, 읽히다 해도 동사니까.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골라보면 정답이 5번이 답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읽히다의 히가 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읽히다의 히가 르에 들어가려면

㉠, ㉡에 모두 정리되는.

즉 품사가 달라지는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이면서 동시에

문장 구조가 바뀌는 통사적 접사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읽히다의 경우에는 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배적 접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정적 접사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는 ㉠하고 ㉡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32번이고요.

이것도 그냥 접두사의 뜻을 한번 정리해보고

사전 지식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보니까 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 큰, B 같은, 한창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접두사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써라, 라고 했는데

㉠, 한겨울.

어느 뜻이야? 큰 겨울이야, 같은 겨울이야, 한창 겨울이야.

한창 겨울.

그다음에 한 걱정하면 큰 걱정, 같은 걱정, 한창인 걱정.

좀 큰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한마음에 자랐다, 라고 하면 같은 마을, B.

같은 마을이겠죠?

다음에 C, 한밤중 하면 이 밤중이 한창.

밤의 한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답인데 여러분, 이 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또 있어요.

이거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접두사가 종류가 또 있는데 이러한 종류는 뭐냐면,

의미가 바깥의, 끼니때 밖.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드리면,

선생님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까 옛날 말을 쓰는데

한뼉잠, 이런 말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뼉잠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까지 써가면서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깥의 곳, 공간.

즉 한뼉잠 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노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에 꼭 들어와서 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데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먹는 데할 때 장소를 이야기하는 의존 명사인데

이때의 한이 바로 바깥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끼니때 밖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한저녁,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

저녁 식사를 먹는 그 시기가 보통 한 6시에서 7시.

이때를 훌쩍 넘어서 9시, 10시에 먹었다.

그러면 한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다른 파생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한이 되는 건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한숨 돌렸다.

우리 씨름 한판 하자.

이거 다 한 단어로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 술 한잔할까, 라고 할 때 이 한잔 같은 단어들.

이런 거는 파생어 아니죠.

이 한은 지금 여기 답지에 나와 있는 큰, 같은, 한참과도 관계가 없고

바깥의, 끼니때 밖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놈들은 수관형사 한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애네는 합성어로 처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33번 가보도록 할게요.

33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너무 수월해.

이것도 답만 이야기해줄게.

4번.

이건 보기 안 봐도 풀 수 있어.

말했죠.

접두사가 어근의 품사 바꾸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4번에 뭐라고 만들어놨어요?

접두사인 되와 접미사 리가 하나의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주었다, 라고 했는데

접두사가 품사 바꾸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버리면 되겠고요.

다음 34번 문제도 외워서 푸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답다, 라고 하는 접미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많은 용언을 만들어주는 접미사들.

하다, 되다, 거리다, 스럽다, 다랗다.

이런 거 있었는데 답다도 역시 접미사예요.

그러면 이 접미사가 결합되면 사전에 등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는 게

모두 등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답다.

정답다는 사전에 등재돼 있을 거고요.

참답다 같은 경우도 등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답다, 신사답다, 도서관답다, 아버지답다, 형답다.

이런 거 사전에 등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다가 접미사로 쓸 수 있다는 정보만 제시해주고

만들어 쓰는 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없다 할지라도.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 조건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2번 조건에서 한번 보면,

그런데 2번보다 3번이 제일 편한 거 같죠.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나 ㉡이나 ㉢의 경우에는

전부 다 신사라는 자격, 도서관이라는 특성, 아이라는 그 특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이나 참 같은 경우에는

애는 약간 성질과 관련된 요소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도 좋겠고

또 보시면, 1번에 보면 자음이나 모음 뒤에 모두 결합하고

답 2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모음 뒤에 결합한 게 신사답다와 아이답다죠?

그래서 ㉠, ㉡을 일단은 조건 1에 의해서 답1로 넘기면 되는 거고

도서관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35번, 이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결국 용언을 이야기하면서

명사형 전성어미인 ㄱ과 음, 기.

그다음에 명사화 접미사인 ㄱ과 음, 기를 구분하는

그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문제가 되죠?

1번, ㉠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고 있어.

큰은 문장성분을 따져보면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웃음은 명사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때의 음은 접미사가 되는 게 맞죠.

다음 2번 갑니다.

㉠의 잠1은 잠을 잠으로써,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영희는 잠을 잠으로써,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예 앞쪽에 관형어든 부사어든 들어가 있었으니까 판단이 쉬웠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없으면 넣어보라고.

없으면 넣어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때 관형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체언을 꾸미기 위해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예쁜이라는 형태는 관형어예요.

예쁜 아이, 예쁜 꽃, 이런 식으로.

예쁜의 자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영희는 예쁜 잠을 잠으로써예요, 영희는 잠을 예쁜 잠으로써예요?

절대 안 맞죠?

즉 여기 자리가 예쁘과 같은 관형어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잠은 명사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분리했을 때 애를 뭐로 볼 수밖에 없다?

명사화 접미사로 보는 거죠.

그에 반해 많이와 같은 단어를 넣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많이 잠을 잠으로써예요, 영희는 잠을 많이 잠으로써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즉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نوم은 이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봐야 된다?

동사.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다에 ㅁ이 붙었을 때 이 ㅁ은 뭐로 봐야 된다?

명사처럼만 쓰이게 만들어준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화 접미사, 명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구분은 수식에 가장 유용해요.

문장에 없어요? 넣어보세요.

넣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 2번인 거 뒤집어야 되죠.

3번에 깊은 잠.

이거는 친절하잖아.

㉔에 보면 깊은 잠 하고 관형어의 수식 받고 있으니까

이때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보면 되겠고요.

파생된 명사.

아예 단어가 됐다는 거야.

4번에 ㉔의 잠은 서술성이 없다.

왜? 애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명사가 됐으니까 서술성이 없는 거야.

그러나 ㉔에 나와 있는 웃음의 경우에는 크게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크게 웃음으로써 할 때의 크게.

크게는 부사어죠?

그러면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높은 동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5번 설명도 맞겠고요.

다음 36번,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보시면 조사랑 접사들을 나눠보자, 라는 문제였던 것이고

3번만 명사 뒤에 체언 뒤에 딱 붙여 쓸 수 있는 접미사에 해당하는 거죠.

아, 미안해요.

3번만 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어미 합성 동사, 선행 요소.

거의 끝 나올 때가 되니까 버벅거리는 게 나와요.

이 이야기예요.

들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써서 보여줘야지.

애는 조사인데 애는 보조사예요.

그러면 이 보조사의 경우에는 격조사와 달리 좀 다양한데 붙어요.

반드시 체언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용언의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고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접미사들이라고 한다면

애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야 되죠?

어근에 곧바로, 찰싹 붙어있어야 되는 그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에 이 ㉔에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명사 뒤에 나와 있는 접미사 구성이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들 할 때의 그때 들인 거고



나머지 ㉠, ㉡, ㉢, ㉣은

그 들을 뺀을 때 그냥 복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각각 요소를 보면

㉠은 어디에 붙었어요?

어서 부사어죠?

부사어 뒤에 붙었죠?

다음에 ㉡, 밖에서 하면 에서가 부사격 조사예요.

역시 부사어 뒤에 붙은 거예요.

다음에 나와서 하면 연결어미.

나오다의 아서라는 연결어미 뒤에 붙어있고

그다음에 많이들, 역시 부사 뒤에 붙어있는 거죠.

조건이 다 똑같잖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37번을 보시면, 보기에 되다 1, 되다 2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조건들 다 맞춰보면 되다 1은 받침 있는 말, 받침 없는 말.

받침 있는 말은 건설, 발견, 평가.

받침 없는 말이 처리 모두 붙을 수 있다 확인되죠?

다음 2번에 되다 2는 명사만이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된다.

명사는 영광이고 부사는 못이나 막.

이런 것들은 부사가 되잖아요.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아, 명사 영광, 부사는 못이나 막 정도로만 찾아주세요.

참은 부사가 아닙니다.

참은 명사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되다 2가 붙는 경우에

못이나 막이 부사고요.

참이나 영광이 명사고요.

3번에 되다 1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이제 빨리하셔야 돼.

건설되다, 발견되다, 평가되다, 처리되다가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ㄴ다를 붙여보세요.

건설된다, 발견된다, 평가된다, 처리된다.

되죠? 그러면 애는 동사 맞아.

그런데 되다 2가 붙으면, 못된다, 참된다, 막된다, 영광된다.

안 된단 말이야. 형용사가 맞아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되다 1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

즉 건설이나 발견이나 평가나 처리는

동작성이 좀 있는 명사들이란 이야기죠.

그런 거 뒤에 붙었다.

그에 반해서 되다 2는 그런 명사들과 붙은 건 아니다.

이제 5번이 답인데, 되다 1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뜻.

되다 2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질문, 못되다.

재 못됐어, 라고 하면 그 상태에 대한 판단 아닌가요?

착했었는데 못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죠?

못돼졌어, 라고 해줘야 변화된 거지

재 못됐어, 라고 하면 상태에 대한 판단.

정적판단이에요.

즉 변화의 기능은 없어요.

더불어 건설되다 1도 마찬가지로.

이루거나 만들다는 사실 능동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발견되었다, 건설되었다는 그렇게 된 거죠.

피동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이루거나 만들거나의 의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능동성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은 되다 1이나 되다 2의 정보가 둘 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걸렸어요.

다음 시간 문장 성분은 좀 짧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습 잘해오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